

6월 구역예배 순서지

예담교회

인도자용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196장 · 성령의 은사를 | 다같이

기도 | 구역원 중

성경말씀 | 사도행전 6장 1-7절 | 다같이

“제목 : 주님이 선택하시는 사람”

1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2그래서 열두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3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4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5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테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6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7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 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말씀살피기 | 다같이

성령강림으로 만들어진 초대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고, 재정 규모도 커졌고, 구제해야 할 사람들도 많아진 것입니다.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이 생겼고, 음식 베푸는 일로 표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문제를 함께 나누고 역할을 분배했습니다.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뽑아서 재정 관리와 음식 베푸는 일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질문1)헬라파(그리스 말을 하는)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나요?(1절)

자기의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으므로

질문2)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택함을 받은 일곱 명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말씀묵상 | 인도자

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 주고도 원망을 듣는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섭섭한 마음이 들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열두 사도(히브리파 유대인)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고백하며, 원망의 원인이 된 일에서 과감히 물러납니다. 신도들은 헬라파 유대인 일곱을 선택합니다. 공정하게 해결 되었습니다.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아름다운 구제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받는다고 항의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넓은 세상의 문화적 경험과 지혜를 지녔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혈통의 순수성을 지녔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갔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도들이 헬라파 과부들을 소홀히 여기고 차별했다고 항의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을 공정하게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용납하기보다 불평하는게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사도들은 불평하는 사람들을 나무라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습니다. 역할을 분담할 사람을 세웁니다. 교회의 재정과 구제의 일을 맡을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재정을 관리하고 음식을 베푸는 일을 하는데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신망이 없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맡은 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홀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쉽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하기 쉽고, 자화자찬하며 자기 의를 드러내기 쉽습니다.

택함 받은 일꾼 사람은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들의 지도력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기도 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구제(봉사)사역'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편을 가르고 비교하고 원망하지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세워진 교회는 언제나 평안하고, 문제나 위기가 없을까요? 교회에 시련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일까요? 문제도 있고, 위기도 있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 길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모두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열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종류 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적용 | 다같이

1. 교회에서 맡은 바 역할 때문에 갈등이나 힘든 일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나요?
2.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나눔 | 다같이

1. 한 달 감사제목 나누기
2. 중보기도 제목 나누기
3. 교회 일정 나누기

합심기도 | 다같이

마침 | 주기도문 | 다같이